

공예 + 디자인

국내 아트퍼니처의 선구자

최병훈

1993년 선화랑에서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국내에 생소하던 아트퍼니처라는 개념을 인지시킨 최병훈 작가. 파리의 갤러리 다운타운(Galerie Downtown), 뉴욕의 프리드만 벤다(Friedman Benda)를 통해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작가로서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를 파주의 아틀리에에서 만났다.

글 최교은 | 사진 박순애 스튜디오 수달



2019 01+02 NO.035

CRAFT + DESIGN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한 구성원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따라 나의 세계에 도전했기에 결과가 어떻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Q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A 미국 휘스턴 뮤지엄에서 신관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영구 설치할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제작년에 답사를 다녀왔고 내년 초에 완성될 것 같다. 파주에 있는 아틀리에에는 주로 나무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둘 작업은 이전에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왕래한다. 그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Q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A 정체성과 시대성이다. 특히 내 작품이 이 시대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령 수려한 고려정자는 고려시대의 정신이고, 담백하고 단아한 조선백자는 조선시대 정신이다. 조선시대에 고려정자를 흉내 내거나 답습했다면 조선의 가치와 정신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정신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나는 21세기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내 작업에 녹여낼 것이며 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작들에게도 강조하는 편이다. 시대성을 이해하려면 음악, 미술, 무용까지 문화 전반을 알아야 된다. 자기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느끼고 공부하며 서서히 구축해나가야 한다.



올해 초,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된 최병훈 작가

056 057

Q 작가로 활동하면서 전환점이 된 때는 언제였나.

A 목공예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다. 가구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 돌 같은 다른 소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 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목공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다루었다. 공예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의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아트퍼니처라는 영역을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

Q 자기만의 독자성을 찾기 위한 방법을 귀띔해준다면.

A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 우수한 능력만이 아니라 단점이나 약점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예술의 세계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각자에게 맞는 소재나 좋아하는 소재가 있다. 하지만 자기 세계를 극대화하려면 소재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작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지 되묻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고려정자는 이미 과거에 끝난 정신이다. 그것을 21세기에 답습한다는 건 난센스다. 그러니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전통을 이 시대, 나의 가치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2018년에 선보인 작품

‘애프터이미지 오브 비기닝(Afterimage of Beginning 018~499’.

2 작품 구성을 위해 만든 스케일 모델들.

인류 문화는 계속해서 변한다. 새로운 가치를 눈여겨보고 돌고귀를 찾기 바란다. 평소 가요만 듣다가 클래식을 듣는다고 당장 제대로 들리지 않듯 눈도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으니 조바심 내지 말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Q 자기와 맞는 갤러리를 찾는 것도 중요했는데, 국내외 갤러리와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A 우선 자기 작품을 널리 알리는 때는 SNS가 가장 효과적이다. 사진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해외에서도 볼 수 있으니 작품만 좋다면 분명히 컬렉터나 딜러들이 연락할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통로가 없어서 쉽지 않았다. 한때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이 유일한 장이었지만 지금은 크고 작은 갤러리도 늘어나고 전시회도 많아졌다. 여건이 되면 국내, 해외 페어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해보는 게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직접 부딪혀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실히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Kcdf



최병훈 작가의 나무 작업실. 작가로서 긴 세월 경력을 쌓아온 만큼 나무 밑지가 수북하다.

Focus



1층의 나무 작업실과 2층 응접실 사이의 공간을 작품과 모형으로 채워놓았다.

Q 작가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A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작가 생활을 하는 데 지극력이 된다. 오래 작업하다 보면 생각이나 기분이 가라앉기 쉬운데 그러지 않게 계속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나 역시 지금까지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감동할 만한 것들을 접하려고 노력한다. 자극을 받고 다시 움직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 30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운동도 하고 있다. 작가는 담보되지 않은 일을 평생 하면서 버텨내야 하기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다. 남을 위한 구성원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따라 나의 세계에 도전했기에 결과가 어떻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Q 공예, 디자인,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A 공예는 중세 시대의 생산방식이었다. 기계화되기 전에는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생기면서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졌다. 기계에 밀리면서 공예가 위축됐고, 공예는 손이 주는 가치를 찾아 예술의 영역을 끌어들었다. 디자인은 이후 100여 년 동안 호황을 누렸다. 지금까지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20세기와 21세기는 같은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 앞으로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공예는 디자인이든 구태여 장르를 구분 짓지 말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주체인 작가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문화를 바꿔간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지난 시대의 틀과

결과물에 갇히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 역사는 그렇게 변화왔다. 비록 오늘날에는 낯설더라도 그것이 창작자가 가는 길이다.

Q 올해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로 임용됐다. 교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국의 공예, 디자인 대학 교육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우리나라 미술 교육이 임시 위주다 보니 묘사 중심으로 교육해온 것 같다. 손재주는 좋아서 유학 가기도 잘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서양 학생들에게 밀린다. 그들만큼 책을 본 적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못한다. 대학은 직업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각자 분야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도 대신하고 공예의 한 부분을 넘어서거나 한다면 공예가,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 우리는 또 다가울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다.

Q 마지막으로 작가 활동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A 세상에 좋은 눈, 높은 미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작품이 좋으면 알아봐주고 평가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자기를 믿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 바란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눈과 귀를 열고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기회는 빨리 올 수도,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하지 말고 길게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